# 삼청로의 기억이 소환한 배우 남자 셋, 여자 셋

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15년 7월 인터뷰에 앞서 사진 촬영하는 배우 황정민
(연합뉴스 제공)

2024년 4월 말부터 정치부에서 맡게 된 출입처 가운데 한 곳이 감사원이다. 감사원 기자실은 북촌로 끝자락 무렵인 감사원 3별관 안에 있다. 안국역에서 1㎞ 넘게 떨어져 있는 데다, 비탈진 오르막길도 있어 바쁘지 않거나 걷기 좋은 날씨에 주로 가게 된다. 이따금 가지만, 일단 발을 놓게 되면 후회하지 않는다. 감사원을 둘러싼 북촌로와 삼청로 일대는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멋집과 맛집도 즐비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으로 처음 출근한 날 업무를 끝내고 출근길인 북촌로가 아닌 삼청로를 따라 퇴근길에 나섰다. 실로 오랜만에 걷는 길이었다. 한국금융연수원을 지나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다다라 맞은 편 안쪽에 있는 한 카페를 찾았다. 9년 전 문화부에서 영화를 담당하며 1년 1개월에 걸쳐 꽤 많은 감독과 배우를 인터뷰한 장소였다. 골목길로 들어서니 상호는 바뀌어 있었으나 여전히 카페였다. 영화인들을 인터뷰하는 장소 '1번지'였던 이곳 팔판동 카페는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국립현대미술관 맞은편에 있는 소격동의 다른 카페에 자리를 물려주고 '성지'로 남은 듯 보였다.

자그마치 내년이면 10년의 세월이다. 사정을 잘 모르는 이들은 문화부에서의 기자 생활이 한가롭고 즐겁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내게는 매우 바쁘고 치열했던 기억의 점철이다. 영화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를 함께 맡아서 바빴던 측면도 있으나 그만큼 욕심을 내서 최대한 인터뷰를 많이 하려고 했던 이유가 크다. 무엇보다도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을 통해서만 보던 배우를 직접 인터뷰하는 일은 기자로서도 흔하지 않은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삼청로를 바쁘고도 뻔질나게 오가며 만났던 배우들 중 유독 기억에 남는 남자 셋, 여자 셋이 있다.

황정민과는 2015년 8월 개봉해 관객 1천만명을 돌파한 영화 '베테랑' 인터뷰차 처음 만났다. 이미 전년(2014년)에 관객 1400만명을 훌쩍 넘긴 '국제시장'으로 국민 배우의 반열에 오른 그의 심기를 슬쩍 건드리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질문은 "베테랑이 2010년 개봉작 '부당거래'와 비교해 류승완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고 황정민 배우님이 광수대 형사로 분했다는 점, 부패한 사회를 상징하는 설정 등이 여러모로 비슷하다. 베테랑은

오락적이고 부당거래는 현실적인 영화 같다. 나는 부당거래를 여러 차례 본 팬으로서 작품성 면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질문을 가만히 듣던 황정민은 내 나이를 묻더니 "꼰대시네요"라고 쏘아붙였다.

적잖이 당황했으나 기죽지 않은 척하고 질문을 이어갔다. 그에게 작품을 택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도 했는데, 하나뿐인 아들 때문에 섹스신이 있는 작품에는 출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기억에 남는다. 2003년 8월에 개봉한 '바람난 가족'에서 전라의 노출 상태로 정사를 벌이는 연기를 선보인 것이 모종의 계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고 짐작했다. 이어 그의 '명 수상 소감'을 인용해 이번 영화도 스태프가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느냐고 물으니 "늘 그래요. 얍실하게(얄팍하게)"라며 호기롭게 답했다.

영화 기자 1년여의 기간 동안 황정민을 세 차례나 만날 정도로 그는 당시에도 잘 나가는 대표적인 주연급 다작 배우였다. 적어도 황정민이라는 배우의 연기에 대한 열정만큼은 높이 사고 싶다고 생각한 영화가 2015년 12월에 개봉한 '히말라야'였다. 2005년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주축이 된 '휴먼원정대'가 사고로 숨진 동료 대원들의 시신 수습에 나섰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인터뷰에서 엄홍길 대장을 연기한 황정민에게 위험한 장면 촬영 도중에 공포를 느낀 적은 없었는지 묻자 "실제 엄홍길 대장처럼 영화에서 엄홍길 대장 역을 맡은 나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신기한 것이 사람은 역할 따라가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황정민은 당시 엄홍길 대장의 표정, 목소리, 리더십 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듯한 감정이입 연기를 선보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05년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 엄 대장은 히말라야 산등성이에서 작고한 박무택 대원의 시신을 붙들고 오열하면서 거친 쇳소리와 같은 목소리를 낸다. 해발 8000m에서는 공기가 건조하고, 가쁜 호흡으로 찬 공기를 계속 들이켜다 보면 성대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황정민은 엄 대장과 같은 쉰 목소리를 만들려고 촬영 현장에서 3일 내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다며 "그렇게 해서 목이 쉬는데 딱 3일 걸리더라"고 무심히 말했다. 촬영 후 목소리를 들으니 근사해서 후시 녹음 때도 집에서 사흘 동안 똑같이 소리를 질러 쉰 목소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조연급 남배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이는 배우 오달수다. 2018년 사회에 들불처럼 번진 '미투(#metoo·나도 말한다)' 운동으로 그의 성폭력·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영화판에서 오달수의 위상은 대단했다. 그는 출연작들이 대부분 1천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천만 요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와의 인연은 2016년 1월 초에 한 스포츠·연예 전문매체가 보도한 열애설에서 시작됐다. 채

2016년 2월 영화 '대배우'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 오달수 (연합뉴스 제공)

시라의 여동생이자 뮤지컬·연극 배우인 채국희와의 열애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소속사에 백방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소속사는 언론에 이렇게 응대해놓고 다음 날 홈페이지에 오달수와 채국희의 열애를 인정하는 글을 올려 기자들을 뿔나게 했다. 이렇듯 오달수에 대한 첫인상은 별로 좋지 못했다.

두 달여의 시간이 흐른 뒤 한 회사 선배가 오달수를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다. 오달수는 선배의 고등학교 후배였다. 회사 근처의 한 일식당에서 그를 대면하고 단박에 든 첫 느낌은 얼굴이 매우 크다는 점이었다. 오른쪽 코밑에 큰 점은 그가 가진 마스크의 개성을 더욱 배가해주는 느낌이었다. 오달수는 열애설이 났을 당시 소속사의 미진했던 언론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반 연예인답지 않게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달 오달수는 스크린 데뷔 이래 생애 첫 단독 주연을 맡은 영화 '대배우'로 인터뷰했을 때도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근처에서 맥주와 안주를 사 와 기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간간이 담배도 피우면서 분위기를 주도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소탈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2023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을 2015년 개봉한 '성난 변호사'로 인터뷰했던 일도 뇌리를 스쳤다. 솔직히 작품과 그의 연기에 대해서는 별달리 기억에 남는 요소가 없다. 기억에 남는 점은 생각했던 것보다 이선균의 키가 컸고, 그날 인터뷰 자리에 유달리 여기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TV 드라마 '파스타(2010)'에서 '버럭 셰프'로 큰 인기를 얻은 그가 인터뷰에서도 팬서비스(?) 차원에서 까칠한 매력을 발산했던 순간순간도 떠올랐다. 무엇보다도 당시 이선균이 아내이자 동료 배우인 전혜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아내 혜진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였어요. (중략) 잘하고, 멋있고, 대견스러워요. 혜진이는 참 좋은 배우예요. 한 영화에 같이 출연할 생각은 없어요. 매일 집에서 일일 드라마를 찍는데 굳이 뭐 하려고요"

영화를 담당했다고 하면 으레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여배우 중 누가 가장 이뻤어?"다. 나는 배수지(수지)라고 답한다. 그녀는 내가 인터뷰한 여배우 중 나이가 가장 어렸다. 걸그룹 미쓰에이로 데뷔한 그녀

2015년 10월 인터뷰에 앞서 사진 촬영하는 이선균
(연합뉴스 제공)

2015년 11월 인터뷰에 앞서 사진 촬영하는 수지
(연합뉴스 제공)

2015년 8월 인터뷰에 앞서 사진 촬영하는 배우 전도연
(연합뉴스 제공)

2015년 10월 인터뷰에 앞서 사진 촬영하는 성유리
(연합뉴스 제공)

는 이미 10대 때 영화 '건축학개론(2012)'을 통해 '국민 첫사랑'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배우로서의 출발이 좋았다. 그러나 3년 만의 복귀작인 '도리화가(2015)'는 좋은 기운을 이어주지 못했다. 수지는 조선시대 판소리 여류 명창 진채선을 연기했는데, 이야기 전개의 중심에 있어야 할 소리의 경지가 관객들이 공감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판소리를 통해 응어리진 한의 미학과 한국인의 삶을 표현하며 한국 영화의 지평을 넓힌 '서편제(1993)'를 어설프게 따라 한 상업영화라고 혹평했다. 영화 비평 기사에는 '충분한 너름새, 부족한 추임새'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런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진행된 인터뷰의 분위기가 좋을 리 없었다. 작품에 관해 이야기해봤자 분위기만 더욱 나빠질 것 같았다. 당시 21살의 배수지에게 연기 철학이나 내공 깊은 입담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였다. 수지는 인터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으나 특별한 재미나 의미를 찾기는 힘들었다. 당시 소속사인 JYP의 직원들이 뒤에서 자신을 병풍처럼 에워싼 채 어떤 말실수를 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작품을 혹평한 기자들이 앞에서 진을 친 상황이었다. 지루한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연애는 안 해요?"라는 돌발 질문을 던졌다. 수지가 배우 이민호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던진 질문이었다. 옆에 있던 타사 선배가 "얘 민호랑 사귀잖아"라고 해서 놀란 장내 분위기는 정리됐으나 당황해하던 수지의 표정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수지와 이민호는 2년 뒤인 2017년 11월 결별 기사가 떴다.

질문으로 여배우를 두 번이나 울리기도 했다. 한 번은 2015년 8월에 개봉한 사극 '협녀, 칼의 기억'에서 시각 장애를 지닌 여인으로 분해 무협 액션을 선보인 전도연을 인터뷰했을 때다. 이병헌과 전도연이 '내 마음의 풍금(1999)' 이후 16년 만에 재회한 작품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영화는 연출 부족으로 흥행에 참패했다. 나는 전도연에게 '칸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탄탄한 연기력으로 정평이 났으나 영화는 이렇다 할 흥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으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의 의도나 생각과 욕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속상하다고 눈물지었다. 그러면서도 특유의 귀여운 어투로 "천만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흥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동훈, 박찬욱, 봉준호 감독님 같은 '천만 영화' 감독님들을 뵐 때마다 시나리오 좀 달라고 해요"라고 재치 있게 답변을 마무리했다. 전도연의 눈물은 비보도 요청으로 기사에는 담지 않았다.

또 한 번은 2015년 10월 개봉한 옴니버스 영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에 출연한 핑클 출신의 성유리를 인터뷰했을 때다. 성유리는 영화의 제목과 같은 말을 최근에 하고 싶은 적이 있었는지 묻는 내 질문에 자신이 연예계에 막 데뷔했을 때부터 키우는 애완견 이야기를 꺼내면서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생후 3개월이었던 강아지가 이제는 노구(老狗)가 돼 관절이 좋지 않아 매일 진통제를 맞는데, 생각만 하면 미안한 감정이 든다는 것이었다. 가수로 활동할 때부터 배우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옆에서 함께한 사랑스럽고 고마운 존재라며 한동안 계속 눈물을 흘려 인터뷰가 잠시 중단됐다. 풍부한 감정에 더해 천성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함과 겸손함 또한 매력적인 배우였다. 성유리는 "진한 멜로 연기를 하고 싶으나 노출에는 자신 없다", "성유리가 나와서 안 본다는 선입견만 없어지면 좋겠다" 등의 솔직 담백한 말을 여럿 남겼다. 성유리는 당시 개봉한 영화를 끝으로 필모그래피가 끊겼지만, 훗날 언젠가 다시 영화배우의 입지를 다지는 모습이 내 머릿속에는 그려진다.

연합뉴스 홍국기 기자